

우리나라 어머니의 자녀 양육의 의미* —거제지역을 대상으로—

이 수 연**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녀의 양육과 출산은 가족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성에게 그 임무와 역할을 맡겨왔다. 따라서 어느 사회에서든 여성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의 역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다. 양육의 본질은 문화적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아동에 대한 견해에 따라 자녀를 양육해왔다. 그 나라의 양육과 교육은 그 문화의 핵심으로 (유안진, 1994) 문화이해를 위해서도 아동 양육 경험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간호학과 관련된 양육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양육 태도나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양적 연구(김태임, 1991; 이용선, 1990; 추미호, 1986)등으로 Schaefer(1959)의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에 의한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측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녀의 불안정도, 영아 감지와 어머니 역할 전환의 만족도 및 초기 수유상황에서의 모아상호작용 양상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및 신생아 양육에 대한 교육이 산모의 돌보기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이미경, 1991) 등이 있다.

최근 들어, 양육과 관련된 태도나 경험을 심도 있게 확인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소수의 질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경험을 보기 위한 것으로, 정신분열증을 가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기술지(Ryan, 1993)와 지체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해석학적 현상학을 이용한 연구가 있다(장효순, 1997).

이처럼, 지금까지의 간호연구에서 양육은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를 취급한 몇 편의 연구가 있었지만, 주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서구의 양육형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방식이었다.

각 나라와 민족은 그들만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을 사회화시키는 것으로, 양육 역시 그 나라와 민족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조건과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한 유교사상이 지배적인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족제도와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깊게 남아있는 사회로, 서구와는 다른 아동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 경험을 통하여 이를 총체적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양육은 기술적인 면, 정의적인 면, 행동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는 복잡한 개념으로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대

* 2000년 8월 경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일부

** 거제대학 간호과

한 총체적이고 인본주의적이며 다면적인 차원을 발견하기에는 질적 연구 접근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문화기술지는 모든 사람은 개별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삶은 문화적 배경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에서 간호 문제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양육방식이 반드시 옳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환경적·사회적·문화적 맥락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문화기술지를 통해서, 대상 마을을 설정하고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양육 경험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는 것은, 우리문화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이를 서양의 양육이론과 접목하여 보다 나은 간호중재와 이론적 틀을 만드는 작업의 필요성이란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문화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우리 민족만이 가진 독특한 가치·태도·신념 속에서, 어머니 양육 경험을 문화기술지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설명함으로써, 서구와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어머니의 양육 의미를 확인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거제 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의 양육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지역을 선정하였다. 거제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거제 문화원을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거제시 문화공보담당관실과 거제 문화원으로부터의 거제면을 소개·추천 받았다.

거제면은 행정상으로는 11개 리가 있으며 23개의 마을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 생활은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다와 접하고 있는 마을과 농사를 주로 하는 마을로 나누어져 있었다. 어떤 마을이 연구지역으로 적합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거제면 보건지소에서 유방검진을 하는 날 각 마을의 부녀회장 및 주민들이 검진을 위해 방문할 때, 지역 특성에 대해서 확인하며 연구 가능성을 타진했다. 또한 거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거제면 번영회에 참석하여 거제면장, 번영회장, 거제면 출신 시의원, 이장을 만날 수 있었고, 면장실을 방문하여 거제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 결과로 거제면사무소와 거제향교가 있는 서정리를 중심으로 농사를 주로 짓는 마을 9개로 우선 제한하였다. 다시 이 마을을 중심으로 부녀회장

과 진화 통화를 한 후 마을을 방문하여 연구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서정리와 북쪽으로 접하고 있는 옥산리에 있는 귀목정 마을을 연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지역을 선정한 뒤, 그 마을의 이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하여 마을을 방문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구판장이라고 부르는 마을 회관에서 이장을 만날 수 있었고, 이 자리는 이 마을 여성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여서 자연스럽게 연구 지역으로 선정된 과정과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자를 소개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연령은 40세 이상이며, 거제지역이 친정이며, 이 마을에서 거주한지 20년 이상된 어머니로서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자, 의사소통에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로 선정하였다. 직접적인 연구 참여자는 아니나 마을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현 이장과 전 이장을 연구 참여자로 포함하였다.

연령 분포는 42세에서 62세이며, 평균 연령은 52세였다. 연구참여자 9명 중 8명은 거제지역이 친정이었다고 한 명은 친정이 부산이고 외가가 거제이며 이 지역에 시집와서 산지가 21년째이었다. 참여자 중 2명이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으며, 7명은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 참여자의 자녀수는 2명에서 6명까지로 평균 4명이었다.

주요정보제공자는 3명으로, 그 중 한 명은 새마을 지도자 부인으로,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 않으나 자녀들이 지방 국립 대학교에 진학하여 비교적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고 마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또 한 사람은 현재 부녀회장으로 시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장이었으며 이 마을에서는 비교적 고학력이며 과거에는 위세를 떨치던 집안의 며느리이다. 부녀회장의 시아버지께서 쓰신 귀목정 유래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붓글씨로 써 놓은 것이 노인정 안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부녀회장의 시동생들이 노인정에 협찬금을 자주 낸다고 한다. 나머지 한 사람은 이장으로 마을의 각 세대에 대한 정보를 기록으로 남겨 놓으신 것을 연구자에게 제공하며 마을에 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 지역 연구 참여자는 농번기에는 대부분 남편과 같이 농사일을 하고, 겨울 농사가 없는 여성들은 11월부터 5월초까지는 굴을 까서 통조림을 만들어 수출하는 가공 공장에 부업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았다.

본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연령	학력	종교	비고
1	51	국졸	무	부녀회장
2	48	국졸	무	새마을지도자 부인
3	56	국졸	불교	전 부녀회장
4	50	문맹	천주교	
5	44	중졸	기독교	
6	42	국졸	불교	전 이장의 부인
7	57	한글 해독	불교	현 이장의 부인
8	61	문맹	불교	
9	62	한글 해독	기독교	

본격적인 자료 수집을 하기 전에 먼저 연구자 자신이 이 마을 사람과 그들의 언어 표현 양식에 익숙해지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다. 먼저 마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보건지소 통합보건요원과 함께 마을을 방문하여 연구자를 소개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이 연구자를 낯선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였다. 1998년 3월부터 6월까지 마을을 자주 방문하여 마을 여성들이 자주 모이는 마을회관(이 마을 사람들은 이 곳을 구판장이라고 하며, 마을 여성 중 한 명이 구판장에서 생활 필수품을 파는 일을 담당하고 있음)에 주로 머물렀다. 처음에는 구판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연구자를 소개하고 마을을 방문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마을 여성과 함께 거제 면에 나가기도 하고, 마을 여성이 병원에 들를 때는 같이 병원에 가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마을 회관에 머물면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을 알 수 있었고, 그들의 언어 표현에 익숙해지고 의문 나는 말은 물어가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들의 일상 생활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도 마을 사람들의 일상 생활이 눈에 들어오고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과 얼굴을 알 정도가 되면서 마을 사람들은 연구자에 대한 경계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 자료수집은 1998년 7월부터 시작하여,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 1999년 12월까지 지속하였다. 이 기간 동안 녹음한 내용은 대화체 그대로 옮긴 뒤 분석하였고, 마을 방문시

관찰한 내용과 면담시 느낌은 가능한 방문 후 바로 기록으로 남기고 자료 분석시 이용하였다. 면담시 누락되었거나 부족한 자료는 다음 방문시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면담은 연구참여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때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하였다. 첫 번째 연구참여자는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 연구참여자를 통하여 다른 연구참여자를 소개받거나 부녀회장을 통하여 연구참여자를 소개받으면 바로 연구자가 전화로 인사하거나 연구참여자의 집을 방문하여 연구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면담 약속 날짜를 정하였다. 겨울철에서 4월, 5월까지의 부업으로 굴을 까러 다니는 연구참여자가 많아서 저녁 시간에 방문하기도 하고, 6월, 7월, 8월, 9월에는 논농사를 주로 짓는 시기로 한 낮에 뜨거울 때는 일을 잠시 쉬기 위하여 집안이나 구판장에서 시간을 보내므로 이 시간을 이용하여 면담을 하기도 하였다. 면담은 주중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말에는 자녀들의 방문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면담 약속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면담 약속을 하고 갔어도 먼 곳에 있는 자식들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녀들과 인사하고 연구자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었고 가족 구성원 모두를 만남으로서 그 다음 면담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끌어 갈 수도 있었다. 1인당 1회 면담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3시간으로 평균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담 횟수는 7-8회 정도 이루어졌다.

면담이 끝난 후에는 곧 연구자의 연구실이나 자택에 돌아와 관찰 내용과 녹음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녹음 테이프를 몇 차례 들으며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였다. 면담시 느낌이나 그 날 일어났던 일들을 간략하게 기록으로 남겼다. 마을에 관한 기록이나 각 세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이장이 직접 제작한 자료집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radley(1993)의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다음의 단계를 거쳐서 정리, 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참여자별 녹음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전체적인 윤곽을 확인한 후 관찰 기록한 내용과 함께 참여자의 언어적 표현 그대로 글로 기록하기 위하여 녹음된 자료를 필사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필사된 원자료에서 양육과 관련된 의미있는 자료에 밑줄을 그은 후 그 문장을 따로 카드로 만들어 비슷한 의미를 가진 자료끼리 분류하여 속성을 발견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분류된 속성에 따라 범주화하였고, 네 번째 단계는 범주화와 관련된 영역을 체계적으로 개념화하여 영역

으로 분류하였다. 이 영역들 중에는 처음부터 영역이 발견된 것도 있고 또는 유사한 속성을 분류 분석하기에 애매한 부분과 2가지의 개념을 갖는 속성도 있었는데 다시 원자료를 읽고 비슷한 점, 다른 점, 관계성을 적어 분석하였다. 명명화 작업에서는 2명의 간호학 질적 연구 전문가와 토의를 한 후 질적간호연구를 하고 대학원에서 질적간호연구를 강의하고 질적 간호 연구 논문 지도를 담당하는 간호학자에게 명명의 타당성을 평가받았다.

Ⅲ. 연구지역의 사회문화적 배경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거제도는 대한반도의 동남단에 위치하며, 동은 대한해협에 접하여 맑은 날씨에는 일본의 쓰시마섬이 육안으로 보이며, 서쪽은 통영반도를 거제도교가 연결하여 한려수도를 건너며, 남은 창망한 태평양을 바라보며, 북쪽으로는 진해만을 끼고 있다. 현재의 거제시는 거제도를 둘러싼 10개의 유인도와 50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다 건너(濟) 큰(巨) 섬이란 뜻으로 거제(巨濟)라 부른다(거제의 전통, 1983). 역사적 유래를 더듬어 거제(巨濟)의 또 다른 의미를 찾기도 한다. 고려 의종이 경인난(무신의 난)으로 백관과 호위군이 함께 쫓겨왔고 고관들의 유배지였으며 전국 285개 성(姓) 중 육지에서 거제로 217개 성(姓)이 입주하였으니 구족(救族)의 섬이요,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나라를 구제한 첫 번째의 옥포대첩을 이룩하였으니 구국(救國)의 섬이요, 6·25 한국전쟁 때는 피난민의 구호와 포로수용으로 수 백만 명을 구제한 구민(救民)의 섬이다(거제시명총람, 1996). 이 지역에 인류가 정착하여 생활한 것으로 이미 선사시대부터 일 것이라 추정된다(이승철, 1996). 역사 문헌상으로는 삼한시대 변한 12개국 중의 하나였던 독로국의 촌치(存置) 지역으로 등장하여 발전하여 왔다. 현재의 행정명칭이 된 거제의 연원은 신라 35대 경덕왕 때 처음으로 바다 건너 큰 섬이란 뜻으로 거제군(巨濟郡)이라 이름한데서 찾을 수 있다(거제시명총람, 1996).

남방에 격해 있는 섬이었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여 때로는 행정의 손길이 뻗치지 않기도 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반상정책(班常政策)에 따라 섬 사람들은 고기 잡는 천민으로 생각했고 함경도를 포함해서 도서 지방 사람들은 동용되지 않았다. 또한 죄인이 귀양와서 사는 피지로 알려져 놀러 앉아 살기를 싫어했다.

총면적이 399.76km²로서 동남아의 싱가포르와 비슷하

며 홍콩의 약 5배 정도가 된다. 그 중 농경지가 18.12%, 대지가 2.40%, 기타 7.42%, 나머지가 임야이며, 인구는 1980년대 중반에 삼성·대우 양대 조선소가 활성화되면서 20만 명 정도이었다가 조선 경기가 약화되면서 다소 줄어들었으나, 1990년대 초반부터 계속 늘어나 현재 16만 5천명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 분포를 보면 도시 인구가 전체의 66.3%이며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이다. 행정구역상 1개 읍 9개 면 235개의 리로 구성되어 있다(거제시, 1998).

1971년 4월 건내량에 거제대교를 설치하여 육지와 연결이 됨으로서 섬 아닌 육지가 되었고, 1999년 4월 신거제대교가 세위짐으로서 거제는 내륙과 밀접히 연결된 새로운 면모로 발전해 가고 있다. 지붕 없는 노천공업인 조선 공단의 기지로 발전하여 공업화해 가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문화행태를 낳는데, 현재의 거제 역시 문화 변동의 흐름 속에 젖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거시적으로 보면 거제는 입지 여건이 남해에 위치하고 섬인 까닭에 일본의 풍속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여겨지며, 세시풍속이나 관혼상제는 옛날 귀양살이 온 서울 양반들의 습성에 따라 서울의 의식과 별로 다름이 없다고 한다. 전통 시대의 거제문화는 고려조나 조선조를 통하여 수다한 고관들이 유배되었던 곳인 동시에 임진왜란 후 많은 장군들이 정주하였던 곳이라서, 관혼상제와 세시 풍속이 다양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양의 의례와 풍속이 그대로 전래되고 있다는 것이 통례이다(거제문화원, 1983).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회영역의 하나가 '마을'이다. 마을은 하나의 지역집단일 뿐만이 아니라 두레나 품앗이 그리고 계를 같이하는 것과 같이 생산활동의 단위이고, 마을 내에 관혼상제의 계기가 생기면 마을 사람들이 자기의 일과 같이 몸 부조를 하며 서로 돕는 의례집단이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같이 모시는 동제를 모시는 신앙집단이기도 하였다. 전통사회에도 마을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정을 단위로 하는 행정체계가 있었고, 몇 개의 마을을 연결하는 시장체계가 있었다. 그리고 향교로 연결되는 교육과 신앙의 체계가 있었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개인은 국가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개인에게 직접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은 지역의 기본단위이며 최소 단위인 마을이었다. 이러한 마을을 그 내용에 따라 크게 여러 성씨가 동거하며 일명 잡성(雜姓)마을 이라고도 하는 평범한 민촌(民

村)과, 양반이 거주하고 한 성씨가 지배적이어서 동족(同族)마을 이라고도 하는 혈연적 유대가 보다 강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반촌(班村)으로 나누기도 한다(이광규, 1994).

본 연구 대상 마을이 있는 지역은 신라 경덕왕 16년(757) 거제군(巨濟郡)으로 개칭한 후 명진현의 치소(治所)였으며, 조선시대 1664년부터 거제부(巨濟府)의 치소(治所)가 있었던 곳이다(거제지명 총람, 1996). 지형을 살펴보면 북으로 계룡산이 병풍을 두른 듯 하며, 남으로 노자산, 동으로 북병산, 서쪽으로는 산방산이 동부의 부춘 들과 거제, 명진, 옥산 들이 감싸고 있다. 그리고 남서로 거제만(巨濟灣)이 있다. 이 항구를 벗어나면 한산도와 통영, 남해 및 여수와 연결된다.

옛 관아였던 동천, 수다한 왜적의 침입을 당하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건립한 성벽, 기성관, 교육의 중심지였던 향교, 선현 봉사 등 정치와 문화상의 활동 중심이었던 서원등이 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는 등 외형적으로 보아 비교적 거제의 전통 문화요소를 많이 유지 보전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행정구역으로 관내에 11개의 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상 마을은 그 중의 하나이며 이웃 마을인 외간, 옥산리가 접하는 마을 어귀에 귀목인 느티나무 정자가 있어, 마을 이름을 귀목정(貴木亭 또는 槐木亭)이라 불려지는 곳이다. 전체 45가구에 162명이 거주하는데 집성촌은 아니며 21개 姓이 잡거(雜居)하는 마을이며, 7세대가 교회에 다니며 2세대가 성당에 다니고 있다. 뒷 마을에 교회가 있으며 과거에는 공소(성당의 지소로 기도 드리는 장소)가 있었으나 현재는 거제면에 있는 성당에 다니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의 세대는 불교를 믿고 있다. 마을 주민 대다수가 대대로 농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민촌이라 할 수 있으며,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마을로서 자연촌(自然村)이다.

벼농사만으로는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특용작물(신선초, 알로에, 토마토, 메론, 화훼 등)재배나 소를 키우는 부업으로 소득을 올리려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농한기였던 겨울철에도 비닐하우스를 새로 설치하고 특용작물 재배 준비로 더욱 바빠졌으며 현재는 논농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여름이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더 있는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유입자와 토박이간에 또는 외지로 나갔다가 귀향한 자녀들과의 사이에 약간의 알력과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지만, 아직도 지역공

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마을에도 공적인 조직으로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청년회가 있으며 최근에 노인회가 조직되었다.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은 면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음력으로 1월 15일 열리는 대동회(大同會)인 동네회의에서 선출하며 이 날 결산보고나 안전을 제출하거나 마을 행사 계획을 논의한다. 또 대동회는 양력 7월 19일에도 있는데 이 날은 마을회관 낙성식날을 기념하여 동민의 날로 정하여 모두가 같이 점심을 먹는 행사를 갖기도 한다. 이런 행사에서는 마을 부녀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장보기부터 음식 장만까지 모두를 마을 회관에 모아서 의논하고 같이 음식을 장만하여 이 장소에서 식사를 한다. 이장은 마을 대표로 면에서 개최하는 이장회의에 참석하고 면에서의 시달 사항을 마을 주민에게 전하며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상부에 전하기도 한다. 현재의 이장은 60대인데 과거 이장은 40대로 젊은 사람이 일을 잘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장을 젊은 사람을 선출한 적이 있으나 과거 이장의 행동의 부도덕성이 문제가 되면서 원래의 이장을 다시 선출하는 과정이 있었다. 부녀회장도 이장과 마찬가지로 면단위 회의에 참석하며 보건지소의 사업 시행이나 면단위 체육대회, 경로 잔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청년회는 실제 활동은 거의 없는 조직이다. 부녀회는 공적인 조직이나 이 마을의 공동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마을 구관장에서 생필품 장사를 각 세대에서 한달씩 책임지고 맡아서 이 이익금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구관장을 새로 짓거나 노인정에 협찬하거나 효도관광에 쓰고 있었다.

마을에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자발적인 조직으로는 품앗이와 계를 들 수 있다. 과거에는 품앗이를 통하여 협동작업을 하였으나 노동교환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노동력이 없는 노인만 있거나 부녀자만 있는 집에서는 샴을 주고 농사를 짓거나 아예 소작을 주고 부녀자 자신은 부업을 가는 경우가 많았다. 또 최근에는 같은 작목을 하는 사람끼리 작목반을 만들어서 돕는 품앗이 형태가 생겼다. 계는 대사를 준비하는 계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계가 있으며 이 마을에는 담계와 제미계(祭米契) 및 갑계(동갑계)가 있다. 담계는 상포계(喪布契)의 형태로 과거에는 계원이 상을 당하면 호랑불에 기름을 부어서 초상난 집에 갔다 두었다가 아침에 가져오거나 상가에 필요한 술이나 초를 갖다주거나 하였으며, 몸부조로서 밤샘과 일을 하고 상여를 메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초상이 났을 때 꼭 필요한 노동력으로 상여를

매고 계금으로 마련한 천막을 제공하는 형태로 도움을 주는 방법이 바뀌었고 길사에도 손(납)을 치를 때 마을 부인들이 같이 도와서 일을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재미계에서도 상을 당하면 쌀을 거둬 밥을 지어서 산에 올라가는 일을 계원간에 도왔다. 친목계로는 갑계가 있는데 동갑끼리 모이는 계로 이 마을에서는 어느 연령이나 갑계를 가지고 있으며 한 마을에 한정된 모임이 아니고 몇 개의 마을에 걸쳐서 계가 구성되고 있었다. 노인 여성들이 주로 있는 갑계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관광을 다니면서 모임을 갖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또 이 마을에서는 마을 입구에 탑이 하나 있었고 마을의 수호신으로 삼고 동제(洞祭)를 지냈으나 새마을 운동이 본격화된 1970년대 초반 정부의 지시로 이 탑을 철거하였으며 현재 이 마을에서는 이 탑을 제거한 자리에 사시던 마을 주민이 “안 편하다”고 표현하였다.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그 집안이 편치 않은 일이 많다고 설명하였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마을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 변하고 있으나 아직도 지역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도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순박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을을 구별할 때 산촌, 농촌, 어촌으로 마을의 위치에 따라 구별하며 마을의 구성에 따라 민촌과 반촌으로 나눌 수 있다(이광규, 1994). 이 마을은 거제도라는 섬에 있는 마을이지만 농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며 혈연공동체인 친족이 모여있는 형태가 아닌 민촌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 마을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현재 마을 주민의 표현을 보고자 한다.

여기는 별로 유서깊은 그런 고장이 아니라서 그런가... 요새 경제적으로 풍부하지 아니하니까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여기도 안되겠다 또 막 부산으로 가뻐다. 유서 깊은 그런 곳은 조상의 집을 가지고 지키고 살고 그 주변의 형제간들도 많이 살고 따뜻하게 경제적으로 살고 또 그런 사람들 공부도 많이 해서 벼슬아치도 되고 지금 말하는 중앙공무원도 있고 (중략) 경제적인 유서깊은 그런 것이 없고 좀 얼쑤가 다 마 서로가 같은 위치다. 이리다 본게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 졌던것 같애... 서로 불쌍하게 헤아리고 협조가 이루어졌던 것 같다. 유서 깊은 마을 예선 낸대하고 내한테 옆드리라 하는 식인데 여기서 그 기없다.(중략) 이제 농사는 하우스 위주로 발달해서 뭐 큰 돈은 안되지만 그거 하우스라도 하나씩 애들 공부라도

시킵니다. 하우스 이거 죽으나 사나 밤낮으로 내외간 노력해서 그래 밀천 뚫는다. 하나 대학교 보내고(중략)

IV. 연구 결과 및 논의

한국 문화, 그 중에서도 농촌(農村)과 민촌(民村)에 해당되는 거제지역 문화권내에서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거제지역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은 '재앙(삼신)에 대한 염려', '부모와는 다른 삶을 소망', '사람됨에 대한 소망', '원만한 결혼 생활에 대한 소망', '대리 만족', '자녀별 기대 차이', '양육 역할분담', '양육 갈등', '최선을 다하지 못함에 대한 후회'의 아홉 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지면상 원자료를 생략하고, 이들 개별적 범주들을 전통 문화, 사상 속에서 고찰하였다.

1. 재앙(삼신)에 대한 염려

재앙에 대한 염려는 '조심하는 마음'과 '기원하는 마음'이 속성으로 나타났다. 아기 점지를 태신(胎神)인 삼신할미의 소관으로 인정하던 전통사회에서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금기를 통해서 조심하도록 하였다. 조심하는 심리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위반하였을 때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사람들이 조심하게 되는 경우는 그들이 위험한 상태에 빠졌다고 느낄 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신이 있는 곳에서의 금기, 신성한 시간과 장소에서의 금기, 신체적으로 위험한 상태에서의 금기가 주류를 이룬다고 보았다(김동욱 외, 1998).

본 연구에서 이 삼신인 재앙은 사사로운 신으로 인식하여 특별한 음식이 생기면 이것을 재앙판 위에 놓고 빈다음에 먹어야 탈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몸에 형상을 포로(표시)를 낸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앙이 아기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조심하는 마음'에서는 산달이 가까워지거나 자녀 출산 후 금기시 하는 행동을 했을 때 출산과정과 아기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런 금기시 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함으로써, 삼신인 재앙이 빠져들지 않도록 하며 동시에 이 재앙이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켜주며 탈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앙판을 아끼 낳은 방 머리말에 차려 놓고 삼 이레나, 이레가 다 끝나는 날 재앙판에 있던 미역으로 국을 끓이고 메를 지어서 먹고는 상을 치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신은 도움을 주는 신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해를 끼칠 수 있는 신이기 때문에 해산 전이나 해산시, 그리고 해산 후에 끊임없이 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빌 때는 미련한 인간이 같데 안갈데 다 갔다고 하면서 빌거나 아이고 재앙님네 모르고 홍시를 먹었는데 아끼 몸에 표가 없게 해달라고 고하거나 하면 재앙이 다 들어주는 것으로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우리나라 속신(俗神)의 성격은 선(善)과 신의가 없는 신으로 기원하는 사람이 착하던 착하지 않던, 기원하는 목적이 선(善)과 악(惡)인지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비위에 맞는 자의 편에 서서 들어주는 것으로 인식한 것처럼(홍일식, 1996) 이 마을 사람이 재앙을 사사로운 신으로 생각하고 욕심 많은 재앙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재물을 많이 갖다 놓고 빌면 대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곧 삼신할머니에 대한 속신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불행한 일을 미리 예방하여 재액을 멀리하기 위해서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함을 깨닫고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귀의함으로써 마음의 안정과 미래의 낙관적인 결과를 예견하는 자기암시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2. 부모와는 다른 삶을 소망

부모와는 다른 삶의 소망은 '교육에 대한 욕심'과 '장래에 대한 기대'의 속성으로 나타났다.

최준식(1999)은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 열의를 우선 배워야 사회의 특권층 속에 편입될 수 있고 그래야 그들만이 갖고 있는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유가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조선조 때 과거를 통해서만이 입신양명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온갖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국민들에게 배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한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을 일으키는 기본 동인(動因)으로는 유교의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인 교육에 대한 열의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교육과 배움을 강조하는 유교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명심보감에서도 특히 권학(勸學)편에서 배움을 강조하는 글귀가 많으며 그 중에서도 "집안이 가난하더라도 가

난 때문에 배움을 그만 뒤서는 안되며, 집안이 넉넉하더라도 넉넉함을 믿고서 배움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가난하더라도 부지런히 배우면 출세할 수 있고, 넉넉하더라도 부지런히 배우면 이름이 빛날 것이다. 오직 배운 사람이 높이 되는 것을 보았을 뿐, 배운 사람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배움은 몸의 보배요, 배운 사람은 세상의 보배이다. 그러므로 배우면 군자가 되고, 배우지 않으면 소인이 되니, 후세의 배우는 자는 마땅히 각각 힘써야 할 것이다." 또 "사람이 배우지 않음은 재주없이 하늘에 오르려는 것과 같고, 배워서 지혜가 심원해지면 마치 상서로운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며, 높은 산에 올라 천하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하였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욕심'은 다음에 나오는 속성인 '장래에 대한 기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문화에서는 집안의 흥망성쇠는 가족구성원에게 달려 있다고 본다. 가족구성원이 착실하고 부지런하면 그 집은 번영되고 구성원이 불량하고 방황하면 그 집은 멸망한다. 부부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자기 자신의 안일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녀를 위한 것이며 집의 장래는 자녀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재산·명예·지위·자녀들 중에 자녀를 가장 가치롭게 생각하였다.

전통적으로 자녀는 특히 남아는 그 집을 계승할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책에 헌신함으로써 가세(家勢)를 일으키고 가성(家聲)을 떨치고 가격(家格)을 높여 집안을 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의 생명을 실현(實現)함으로써 집안에 속해 있는 사람의 생명을 실현한다. 이를 입신지도(立身之道)라 하여 효(孝)의 완성으로 보았다(최봉영, 1994; 1997). 이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륜으로 부과된 사회적 책무를 완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택(恩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의미이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입신양명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농사나 장사를 하지 않고 공무원 같은 직업을 가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 직책을 수행하여 나라에 봉사하기 위한 마음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아들이 우리보다는 출세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위에 나온 속성인 '교육에 대한 욕심'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교육을 통해 좀 더 나은 계층에 속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

최재석(1994)은 한국 사람이 감투에 집착하는 것은 개인의 인간과 직책이 미분화된 우리 사회가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면 거의

누구나 권력의 자리에 앉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은 감투를 쓴 당사자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감투를 쓴 사람을 알고만 있어도 그들은 사회적 도덕은 물론이려니와 법률이나 규칙을 어겨 가면서까지 일신(一身)이나 자기집단은 부당한 권익을 획득할 수 있다고 의식하고 있다. 특히 농촌 사람들은 감투를 쓰게 되면 실재는 그렇지 않더라도 거의 무슨 일이든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의식하고 있다. 농촌 사회에서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관(官)의 제약력이 도시에 비해 더 크므로 관료의 권위 의식이 강한 사회에서는 자연히 관료 아닌 계층은 벌시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을 잡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나 자기 가족의 방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잠재적 피해 의식에서 기인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피해 의식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었다. 모르는 사람은 알아도 못하고 무시당할 때는 눈물이 절로 나예. 그렇게 있더라고예. 아이들을 키워서 의자에 앉힌다는 마음이... 특히 관(官)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본인들의 집안 배경이 이 부당한 일을 막을 힘이 없다고 생각하므로, 자식만이라도 대우를 잘 받을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사람됨에 대한 소망

사람됨에 대한 소망은 '분수를 아는 삶', '올바르게 사는 삶', '열심히 사는 삶', '강하게 사는 삶', '섬기며 사는 삶', '모나지 않는 삶'으로 속성이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속에서 이상적인 인간형은 성인(聖人)으로 성(誠)과 경(敬)의 수양방법을 통해 도달하는 도덕적인 극치라 할 수 있다. 공자 사상에서 사람다운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지며, 덕을 쌓은 사람, 사리사욕이 없으며,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

우리의 전통사상에서는 안분지족(安分知足)을 강조하는 내용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중용의 안분지족(安分知足)편에는 "군자는 자신이 처한 처지와 분수에 따라 처신하고 행동하며, 그 이외의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편안하고 이상적인 인생 태도로, 지극히 평범한 말이지만 최고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계녀서의 요계(要戒)에서는 "사람의 귀천빈부(貴賤貧富)는 정

해진 분수에 달렸으니 타인이 귀하고 벼슬이 높으며 집이 부유하거나 보고 부러워하지 말지니, 사람이 모든 일에 만족할 줄 알면 자연 마음이 평안하리라. 추위도 나보다 못 입는 사람을 생각하고 배가 고프도 나보다 못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 자연 부족함에 대한 근심이 없다" 하였다. 소학의 계고(稽古)편에서는 "의복이 신분에 맞지 않으면 몸에 재앙을 가져온다." 하였다. 논어의 팔일(八佾)편에는 공자가 노나라의 대부인 계손씨에게 천자가 즐길 수 있는 8급의 춤을 뜰에서 춤추게 하는 것을 보며 대부가 천자가 즐기는 춤을 즐긴다면 예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할 수 없는 일을 하였다면 이 일뿐만 아니라 어떤 일인들 못하겠는가라고 하였다. 군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려서 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전통사상 속에서도 분수를 지키는 것을 중요한 가르침의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참여자인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자녀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나 가정 형편상 어쩔 수 없을 때 그들의 분수에 맞는 삶을 선택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올바르게 사는 삶'은 다음의 전통 사회의 가치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리 전통 사회에서는 가정의 가치관에 따른 인간의 기본 교육에 많은 힘을 써 왔으며, 특히 자녀 교육은 어머니의 정성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신사임당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들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었구나 하고 느꼈을 때였다고 한다(손인수, 1986 I). 신사임당은 자녀들에게 강조할 정신적 가치를 어릴 때부터 생활을 통해 체질화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고 한다. 명심보감에도 "엄한 아버지는 효자를 길러 내고, 엄한 어머니는 효녀를 길러낸다."하여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훈계(訓戒)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우리 전통 사회는 "과부의 아들은 탁월한 재능의 나타남이 있지 않으면 더불어 벼를 삼지 않는다."하여(소학) 과부의 자녀들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이런 사람과 친구로 사귀는 것에 주의를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에도 있으며, 특히 남편과 사별한 여성인 경우 자녀가 올바르게 커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엄하게 함을 볼 수 있었다.

'열심히 사는 삶'은 다음과 같은 사상에서 볼 수 있다. 우리의 전통 사회에서는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수양방법으로 성(誠)과 경(敬)을 중요시하였으며, 성(誠)은 유학의 중심사상으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 성(誠)

은 정성을 다함과 참으로의 진실(眞實)의 뜻이 있다. 이 성(誠)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성실한 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전통 사상 속에서 이 성실이 모든 행동의 근본을 이루었고, 안창호에 의해서 무실역행(務實力行)의 사상으로 고조되었다. 이는 공리공론(空理空論)을 하지 말고, 우선 나 한 사람부터 성실한 사람이 됨으로써 이 힘이 모여 민족의 증흥에 이를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성실한 것이며,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직무에 성실히 임할 때 비로서 건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각계 각층의 사회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가훈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성실(誠實)임을 보여주고 있다(손인수, 1986 II).

'강하게 사는 삶'은 우리 전통 사회에서 강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오늘날 경쟁 사회에서 나약한 사람이 적응하기 어려움을 느낀 어른 세대가 자녀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또 강하게 키우려고 하니 위의 '올바르게 사는 삶'에서 나온 것처럼 엄하게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논어의 헌문(憲問)편에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면 고생시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하여 자식을 사랑하면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여 더욱 깨우치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요즘 부모들의 양육태도에서 자녀들의 학업 성적만 우수하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며, 일상생활을 통한 훈련을 간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 양육에 대한 전통 사상에서는 아이의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사고를 넓힐 수 있고, 사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참기며 사는 삶'의 속성은 우리의 전통 사상 속에서는 장유유서의(長幼有序)의 윤리가 있어서 연소자는 연장자를 공경하고 연장자는 연소자를 사랑으로 훈육하는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순서에 있어서 연장자 다음에 연소자가 하게끔 하였다. 어른을 알고 모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에서 권장하는 행위로, 확대가족 속에서 자라는 자녀의 양육에서 저절로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보았다.

우리 전통 사회에서 '모나지 않는 삶'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없으나 논어의 헌문(憲問)편에는 자로(子路)가 군자에 대해 묻자 "자기를 수양하여 공경하는 것"이라 하여 자기를 수양하여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논어의 양화(陽貨)편에는 어느 집단이건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너도 나

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찬한다는 것은 그 만큼 기회주의자이고 위선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마을의 선한 사람이 좋아하고 악한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선한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위의 '모나지 않는 삶'과 일치하지 않는 윤리이다. 우리 전통 사회에서는 적당히 처신하고 특별히 모나지 않게 행동하여 누구나 칭찬하는 사람을 가치롭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현대에 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손해보지 않는 처세 방법을 취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4. 원만한 결혼생활에 대한 소망

원만한 결혼생활에 대한 소망은 '결혼생활에 대한 염려'와 '배우자에 대한 바램'의 속성으로 나타났다.

'결혼생활에 대한 염려'에서는 특히 딸을 시집 보낸 후 가지는 염려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딸의 시집 가게 계승에서 중요한 부분인 임신, 출산력 특히 남아를 출산하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가 높다. 이는 부자중심의 가족 체계에서 여자가 지위를 확보하는 확실한 방법은 아들을 출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며 그러한 생각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옴을 볼 수 있다. 한 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본인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끝이 납니까? 끝이 안 나지예라는 자료에서도 볼 수 있다.

'배우자에 대한 바램'의 속성에서는 특이하게 며느리에 대한 기대와 사위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더불어 결혼은 한 개인간의 애정 결합만이 아닌 집안간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전통 사회에서는 딸은 혼인을 통하여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며느리는 우리 집에 데리고 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집보다 경제적으로나 학력이 높은 여성은 시댁에 순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래서 농촌에서는 대학 나온 며느리를 환영하지 않는 풍토가 있었다. 하지만 딸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집에 시집가서 편히 살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을 볼 수 있다.

소학의 가언(嘉言)에는,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모든 면에서 내 집보다 나은 집안으로 시집을 보내야 한다. 내 집보다 어느 모로나 나은 곳으로 시집을 가면 시댁 어른을 섬기는데 있어서 반드시 공경하며 자신을 낮추고 또 몸가짐도 조심할 것이다. 며느리를 맞

아들이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내 집보다 모든 면에서 낮은 집 딸을 며느리로 맞아 들여야 한다. 내 집보다 낮은 집에서 시집 온 며느리는 시부모를 섬기는데 있어서 반드시 모든 면에서 며느리로서의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할 것이다 하였다. 소학에서는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로 며느리를 낮은 집에서 데리고 와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은 이어져 오는 것으로 보인다.

5. 대리만족

대리 만족은 '아들에 대한 애착', '아들에 대한 의존감', '대물림에 대한 염려'로 속성이 나타났다.

'아들에 대한 애착' 속성은 부자중심의 가부장권의 계승이 남아에게만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남아를 얻을려는 기자속(祈子俗)이 발달하였다(유안진, 1991). 아들은 노후를 의존하고 봉제사(奉祭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존재로서 가치로운 존재였다. 같은 동양권에 있는 일본은 수직구조의 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가(家)는 생활공동체이며 농업과 같은 경우는 경영체이고 그것을 구성하는 가족원은 흔히 가장의 가족성원으로 이루어지나 가족성원 이외자를 포함할 수 있다(申根千枝, 1982). 그래서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을 후계자로 맞아들여 가계를 계승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계계승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들이 없어도 사위를 양자(養子)로서 받아들여 가계를 계승시키는 경우가 흔히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후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불효로 무자(無子)는 여성이 버림받을 수 있는 칠거지악(七去之惡)에 속한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일처제(一夫一妻制)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아들이 없는 남자가 득첩(得妾)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정당시하게 되었다(최홍기, 1994). 이러한 생각은 미운 짓을 해도 아들이 좋아. 내 아들이 좋지. 내자식이끼와 같은 자료에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남아선호로 임신하는 동안 태아 성감별을 통해 인공적인 유산을 시행함으로써 성비(性比)가 깨어지는 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남아를 선호하였으나 여아도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던 우리 전통 사상과도 일치하지 않는 풍토이다. 이는 현대 가족이 자녀수의 제한으로 정당한 방법과 과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중시하는 가치관과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아들에 대한 의존감'의 속성은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한 윤리로 삼종지도(三從之道)가 있었다. 여성이 시집을 가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을 가서는 지아비를 따르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을 따라야 하며 감히 여성이 마음대로 일을 처리할 수 없다는 도리(道理)로 가부장제의 가족사회에서 남성에게 여성을 예측시켜 의존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어머니로서 여성의 지위와 권한 및 위엄도 대단히 존중되어서, 장성하여 자식을 여럿 둔 아들이라도 부친 사망후에는 오히려 모친의 지시와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불효로 인정되었다고 한다(유안진, 1991). 그 뿐만 아니라 '내주장'이라 하여 남편이 정신적으로나 어떤 결함이 있어 외주장(外主張)할 능력이 없을 때는 여성의 내주장 능력(內主張能力)을 인정하여 삼종지도(三從之道)만 강요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삼종지도(三從之道)의 도리가 우리에게 남아 있으며, 이는 모자관계를 지나치게 밀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가족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물림에 대한 염려'로 어머니 자신과는 다르게 시집간 딸이 첫아들을 낳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결혼생활에 대한 염려'와도 관련성이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딸이 시집가서 시댁의 가계 계승자를 출산하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로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식구조 속에서 개인보다는 집단이 우세하며, 내 딸도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시집간 가(家)의 가계 계승자를 출산하는 며느리의 직분을 다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볼 수 있다. 또 우리나라 어머니는 자식을 나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특성을 딸이 이어갈 것에 대한 염려를 하기도 한다.

6. 자녀별 기대 차이

여섯 번째 범주는 '자녀별 기대 차이'로 '성별에 따른 기대', '능력에 따른 기대'와 '미진한 자녀에 대한 안쓰러움'이 속성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기대'의 속성에서는 남아와 여아에 대한 기대가 다름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전통 사회에서도 남아와 여아의 교육 내용이 달랐으며, 이는 전통 사회에서 남녀에게 기대하는 역할 차이로 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사소절의 부의장(婦儀章)에서 여자를 가

르치지 않으면 남의 집을 망치고 남자를 미리 가르치지 않으면 자기 집을 망친다는 말에서 어린시절 교육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의미외에 여자아이는 시집을 가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볼 수 있다. 자녀교육의 담당자인 어머니는 자녀의 성에 따라 어머니가 담당하는 교육의 영역과 내용이 달랐다. 남아인 경우는 사랑채에 나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기 이전인 10세 정도까지가 어머니의 전담교육기간이었으며, 이때 어머니는 주로 아들의 인격형성과 품성교육에 주력하였다. 여아의 교육에서는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딸의 경우 부덕(婦德), 부언(婦言), 부용(婦容), 부공(婦工)을 갖춘 효녀, 효부, 현보, 양처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현숙한 부인으로 길러낼 교육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인성교육은 물론 간단한 문자교육과 교양교육 뿐만아니라 여자에게 필요한 요리, 바느질, 길쌈 등의 가사기술과 육아기술, 태교에 대한 지식까지 전통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르치는 것이 모두 다 어머니의 책임이었다(계녀서). 위의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남아는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사람으로, 여아는 남편 잘 만나서 살림 잘하면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그래서 남아는 여아보다 더 많은 교육 기회를 가지기를 기대하고 여아는 살림을 잘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능력에 따른 기대'의 속성에서는 '성별에 따른 기대'에서 처럼 남아에 대한 기대가 우위를 차지하나, 어머니 자신의 양육 경험에서 부당하다고 느낀 것을 본인이 양육할 때는 그와 반대로 양육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자료 수집 과정에서 보면 같은 연구 참여자의 자료에서 남아에 대한 기대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자료가 동시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전통적인 가치관과 평등에 대한 가치관으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남아와 여아에게 한정된 자원으로 한 사람에게만 기회를 줘야 하는 상황에 접할 때는 남아를 우선 고려할 것으로 보이며, 여아끼리 있을 때는 능력있는 여아를 우선시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미진한 자녀에 대한 안쓰러움'의 속성을 보여준다. 장효순(1998)은 지체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서 장애자녀에게 '안쓰러움'을 나타내며 사랑과 연민으로 바라보았으며, 불쌍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장애자녀를 최선을 다해 보살피고 보호해 주려고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어머니는 자녀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자녀의 불행울

내 자신의 불행으로 인식한다. 동시에 임신과 분만과정에서의 어머니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자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이 자료의 어머니도 **놀을 달에 3 미터 되는 웅덕에서 구부러졌거든 그때 떨어졌으면은(사산되었으면)... 근데 대 여섯달 됐으면 떨어졌을랑가...**하며 자신의 잘못으로 자녀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표현을 하였다.

7. 양육 역할 분담

양육 역할은 '시댁 가족 도움', '저절로 자람'의 속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통 사회에서는 확대가족으로 양육을 어머니 혼자 책임지지 않았으며, 부모외에 다수의 성인 가족이 있어서 이들이 아동 양육에 관여해 왔다. 위 자료에서는 주로 시조모, 시부모, 시누이에게 양육을 의존함을 볼 수 있다. 유안진(1991)은 대가족 문화에서 양육되는 아동은 의존적인 성격이 키워질 수 있으나,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자란다고 보았다. 동시에 성인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빨리 성인세계에 들어가게 되며, 일상생활을 통해 인간 생활의 이면과 극절을 경험함으로써 인생조감능력(人生鳥瞰能力)을 보다 일찍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 문화의 전승과 발전에는 양성삼세대(兩性三代)인 조부모, 부모, 손자녀가 각기 자기 위치에서 제대로 활동하면서 서로 밀도 높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핵가족 제도는 문화의 전승에서 왜곡과 단절이 초래되어 문화의 발전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가족제도로 비판받을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자는 농사일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로 아동 양육을 시댁 가족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부모가 없는 가정의 어머니는 우리는 옛날에 아들 저거로 볼 사람이 없어서 업고 일했다 아이가, 요새는 모자리 종판을 하지 않은 옛날에는 그냥 흘려버든, 그래가 아를 이래 업고 해 가지고 옛날에는 진데기 그 약도 없었다 아이가. 순순히 손으로 뺏다 아이가. 이래 아를 업고 있으면 아가 거꾸로 들어가빨라하고 빨구덕에, 어휴... 말도 마라. 사람 사는 것도 아이다 에서 보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업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그나마 시조모, 시부모 혹은 시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양육역할을 분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편으로는 '저절로 자람'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

다. 이규태(1990 III)는 우리 농가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을 방입해서 기르는 전통이 있는데, 이는 가계가 어렵고, 아이들이 많아 어머니의 힘이 미치지 못하여 생기는 불가항력적인 방입으로 보았다. 이는 김주숙(1994)의 연구에서 농촌 여성이 농사일에 참여하는 정도를 보면 사철내내 하거나 아니면 농사철에 만이라도 꼭 농사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마을도 과거에는 논농사가 주로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특용작물 재배로 특별히 농사철이라는 기간이 분명하지 않고 일년 내내 바쁘며 상대적으로 여름철이 시간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이 어머니로서 자녀에 대한 애착이 있으나 가사담당자로서 주부역할과 농업에 참여하는 경제 활동자로서 책임져야 할 부담이 크므로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에 관여하는 어머니 역할은 소홀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확대가족 아래에 있는 여성은 한편으로는 도움을 받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져야 할 식구가 많으므로 인해 내 자식에게 충분히 신경 쓰지 못함을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농사짓고 사는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자녀들은 이런 현실을 떠나 공무원이라도 되어서 어머니 자신보다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 양육 갈등

양육 갈등은 '잘 키우려고 노력함', '조심하면서 키움', '이해부족', '버릇이 없음', '화풀이'의 속성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잘 키우려고 노력함'의 속성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어머니는 자녀를 자신의 일부로, 자기 생명의 연장으로, 자기의 창조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애정을 자녀에게 주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애정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내자식'만이라는 가족이기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는 것과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방향을 스스로 개척하고 나아가기 위한 지혜를 쌓기 위한 학업이 아니고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는 어린 시절에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성인기에 들어와서는 자녀에게 부담스러운 부모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심하면서 키움'의 속성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함을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어머니들은 자녀를 키울 때 본인이 본보기가 되어야 함을 알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실질적인 가정 운영자인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는 문헌이 많으며(소학, 계녀서, 내훈), 어머니가 자식을 제 때 가르치지 못하면 자식을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가 시부모의 행동이 못마땅하여도, 내 자식이며 동시에 시부모의 손자인 아들의 눈치를 보며 조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앞으로 내자식이 나에게 본인이 한 것처럼 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전통 사회에서 내가 한 행동이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행동이 미칠 결과를 생각하면서 신중히 처신하는 것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가족의 유지와 화목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다.

양육 갈등의 세 번째 속성으로 '이해 부족'의 속성을 볼 수 있다. 특히 어머니 입장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채워지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갈등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부모 역할은 엄부자모(嚴父慈母)로 아버지는 권위적이며 상징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혼육시에는 아버지가 엄하면 어머니가 자애로써 자녀의 마음을 달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는 부부중심의 서구와는 다른 형태이며 서구에서는 혼육의 일관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김미예, 1999). 현대에 와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부족으로 생기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체적인 대화를 통해서 자녀를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Ginott, 1983, I II). 하지만 우리나라의 아버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양성적인 아버지 역할과 의사소통 혼련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며, 동시에 전통적인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해나가지 못하는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통적인 가정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전승되어지는 역할습득 기회를 잃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우리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부모 역할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속성은 '버릇이 없음'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확대가족의 특성상 어린이를 꾸짖으면 역성을 들어줄 어른이 많았다. 원자료에서는 어머니가 꾸짖으면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가 안쓰러워 어린이를 감싸고

어린이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어른 앞에서 아이를 꾸짖는 것이 부모를 모시는 며느리의 태도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녀 훈육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확대가족의 양육이 자녀를 버릇없게 키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광규(1997)도 우리나라 사람의 의존심이 이러한 양육 환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며, 자녀훈련시 태도가 성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연구자 자신은 확대가족이 제대로 각자의 역할을 해준다면 자녀의 인성발달에서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으로 보며, 가족간의 갈등이 심할 때는 이것이 자녀 양육에서 '화풀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화풀이' 속성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어머니는 가정 생활에서 느끼는 긴장이나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자신보다 약한 존재인 자녀에게 화풀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화풀이는 확대가족 속에서 일어나는 역할 갈등, 결혼 생활 초기의 적응 과정에서 본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 형편,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어머니의 부담감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어머니 자신의 긴장과 갈등시 발생하는 감정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어머니에게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적절한 행동이 아니며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더라도 자녀의 정서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머니 행동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 최선을 다하지 못함에 대한 후회

최선을 다하지 못함에 대한 후회는 '한스러움', 안타까움'과 '아쉬움'의 속성으로 나타났다.

'한스러움'의 속성은 어려운 경제 생활로 인해 딸과 아들을 남의 집 식모나 배의 일군으로 보낸 사실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경제 사정으로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것과 이혼한 시동생의 자녀를 맡았다가 그걸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복지시설에 맡긴 것을 한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나라에만 있는 개념인 한(恨)의 문제로 농경취락사회의 숙명관과 체념, 폐배의식의 관계, 약자와 여성의 기본정서로 정의되고 있으며 아픔이 쌓이고 가라앉으며 축적된 것으로 보았다(최길성, 1996). 우리 나라에서는 1950년대 말 빈한한 농가에서 딸이 식모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 뿐만 아니라

경제적 곤란으로 모두가 학업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누이동생이 벌고, 오빠는 학업을 계속해서 이 오빠가 집안을 일으키고 지위상승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가족 생존 전략을 취해왔다. 이런 과정에서 아들보다는 딸이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우리 나라 여성들의 가슴에 맺힌 한으로 남기도 하였다. 이는 어머니로서의 직분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수행과정에서 좌절되면 생길 수 있는 한(恨)의 정서이다.

한스러움과 비슷한 속성으로 보이거나 조금 다른 것으로 '안타까움'의 속성이 나타났다. 대개 자녀가 질병에 걸렸을 때 어머니가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확대가족 속에서 경제권이 없는 어머니가 자녀의 질병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방문할 수 없었던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가정 경제의 어려움으로 어머니가 겪게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못함에 대한 후회'의 마지막 속성으로 '아쉬움'이 있다. 확대가족 속에서 경제권이 없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해줄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시부모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마음껏 해 줄 수 없었음에 대한 아쉬움으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거제지역 어머니의 양육경험을 확인하여 우리 전통 문화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사상 속에서 탐색해 본 결과, 우리 가족의 특성과 고유한 사상이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 생활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양육 경험과 서구 문명의 유입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동이 일어나는 과도기적인 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며 우리의 전통 사상 속에서의 양육도 서구 문화와 접하면서 변모되어 가고 있다. 최봉영(1996)도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기존의 규범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가는 과도기적 사회는 어디나 있을 수 있다. 한국인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적 문화에 집착하면서 동시에 사촌만대로 이어지는 새로운 문화를 열망하는 이중적 태도로 인해 규범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현실 적응적인 편의주의적 문제 해결로 기회주의적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였다.

이에 우리의 전통 양육에서 장점으로 볼 수 있는 내용

으로 정서적 안정을 중시하고 부모 역할에서 상호보완적이며, 개인보다는 가족을 배려하는 점과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당연한 도리로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바람직한 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통사회에서 자아실현은 자신을 갈고 닦아 온전히 보전하고, 인간으로 태어나 나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여,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입신지도(立身之道)라 하여 효의 완성으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자애로 사랑하되 이기적 욕구에 빠지지 않도록 엄격한 가정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상이 우리나라를 지탱해 오는 원동력이 되었으나 오늘 날에 와서 서구 문화와 접하면서 변질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의 전통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며 서구문화의 장점과 통합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V. 결론 및 제언

간호의 중심개념인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인간의 삶의 방식, 사상, 자연환경 등을 무시할 수 없다. 양육의 본질과 질은 문화적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그 나라 아동 양육이 그 문화의 핵심으로 그 사회의 아동 양육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제도 한 마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들의 양육경험의 의미를 확인하였으며, 이로써 한국 전통문화사상 속에 살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 경험을 기술·설명하여 우리나라 어머니의 양육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우리나라 문화와 정서에 맞는 간호 중재와 간호 이론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한 문화기술지이다. 연구 참여자는 9명으로 평균 연령은 52세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1998년 7월부터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 1999년 12월까지로 1인당 평균 면담 횟수는 7-8회이었으며, 1회 면담시간은 평균 2시간이었다. 수집한 자료는 Spradley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거제도 어머니의 양육과 관련된 첫 번째 범주는 '재앙에 대한 염려'로 나타났으며, 그 속성은 '조심하는 마음', '기원하는 마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속성은 우리 전통 사회에서는 아기 점지를 태신(胎神)인 삼신

할미의 소관으로 인정하며 출산한 산모나 아기의 건강을 살피는 신인 삼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도록 일상 생활에서의 금기를 통해서 조심하도록 하며, 산모와 아기에게 탈이 생겼을 때도 이 삼신에게 빌므로써 산모와 아기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두 번째 범주는 '부모와는 다른 삶을 소망'으로, 속성은 '교육에 대한 욕심', '장래에 대한 기대'로 나타났다. 우리 전통 사회는 교육과 배움을 강조하는 유교로 인해 배운다는 것은 사람이 되는 근본이며 처세의 필수이며 인생의 종착역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교육에 대한 욕심'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입신양명(立身揚名)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부모들은 본인들의 노력으로 자녀가 더 나은 교육 기회를 갖기를 소망하여 농촌에서는 그들의 전답·가산을 탕진하면서 서까지 그들의 자식을 상급학교에 진학시키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문화에서는 집안의 흥망성쇠는 가족 구성원에게 달려 있다고 본다. 부모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자기 자신의 안일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녀를 위한 것이며 집의 장래는 자녀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재산·명예·지위·자녀들 중에 자녀를 가장 가치롭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장래에 대한 기대'는 자녀가 교육을 통해 좀 더 나은 계층에 속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
3. 세 번째 범주는 '사람됨에 대한 소망'으로 속성은 '분수를 아는 삶', '올바르게 사는 삶', '열심히 사는 삶', '강하게 사는 삶', '섬기며 사는 삶'과 '모나지 않는 삶'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거제지역 어머니들은 그들의 자녀가 가정 형편에 만족할 줄 알며, 어긋나지 않게 자라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며, 뒷사람을 공경하며, 사회생활에서 원만한 사람이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네 번째 범주는 '원만한 결혼 생활에 대한 소망'으로 속성은 '결혼 생활에 대한 염려'와 '배우자에 대한 바램'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어머니는 자녀의 결혼 후에도 '결혼 생활에 대한 염려'가 있으며 특히 딸을 시집 보낸 후 가지는 염려가 크다. 어머니는 딸의 시집 가게 계승에서 중요한 부분인 임신, 출산력 특히 남아를 출산하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바램'에서는 며느리와 사위에 대한 기대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5. 다섯 번째 범주는 '대리만족'으로 속성은 '아들에 대한 애착', '아들에 대한 의존감' 및 '대물림에 대한 염려'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며 이는 우리사회의 전통 가족은 부자중심의 가부장권 계승이 남아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아들은 노후를 의존하고, 봉제사(奉祭祀)를 책임지며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존재로서 가치로운 존재였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한 삼종지도(三從之道)의 영향으로 아들을 남편 대신으로 의지하는 '아들에 대한 의존감'이 나타나며, 어머니 자신과는 다르게 시집간 딸이 첫아들을 낳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6. 여섯 번째 범주는 '자녀별 기대 차이'로 속성은 '성별에 따른 기대', '능력에 따른 기대' 및 '미진한 자녀에 대한 안쓰러움'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는 남아와 여아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차이를 두었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낳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녀의 능력대로 시키겠다는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며, 결함이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사랑과 연민으로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7. 일곱 번째 범주는 '양육 역할 분담'으로 '시댁 가족의 도움', '저절로 자람'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대가족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였으며, 어머니 혼자서 양육을 전담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도 시조 부모, 시부모, 시누이의 도움으로 자녀를 양육하였으며, 어머니 자신은 농사일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현실적인 문제로 자녀 양육을 시댁 가족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 농가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을 방임해서 기르는 전통이 있는데, 이는 가계가 어렵고, 아이들이 많아 어머니의 힘이 미치지 못하여 생기는 불가항력적인 방임으로 보았다.
8. 여덟 번째 범주는 '양육 갈등'으로 '잘 키울려고 노력함', '조심하면서 키움', '이해부족', '버릇이 없음', 및 '화풀이'로 나타났다. 거제지역 어머니는 어려운 양육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하여 헌신함을 볼 수 있으며, 부모 역할로서 본보기를 보이기 위하여 언행을 조심하며 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 역할의 부적절서으로 인한 자녀 이해부족, 확대가족 하에서 훈육의 어려움이 나타났으며, 때로는 어머니 자신의 화를 자녀에게 투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9. 아홉 번째 범주는 '최선을 다하지 못함에 대한 후회'로 속성으로는 '한스러움', '안타까움' 및 '아쉬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어머니는 경제적 어려움과 확대 가족하에서 경제권 부재로 인해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 한스러움, 안타까움, 아쉬움의 정서를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어머니의 고유한 양육 경험을 파악하여 양육 상황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우며 동시에 한국의 문화 간호 이론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그 나라의 양육은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며, 우리의 전통 사상과 가족 구조의 특성이 양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대부분의 간호사는 서구 이론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으며 우리나라 대상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에 우리 나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여 대상자를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가족환경연구회 (1994). 가족과 환경, 교문사.
- 거제시 (1999).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 거제문화원 (1997). 거제향토문화사.
- 거제문화원 (1996). 거제지명총람.
- 김동욱, 최인학, 최길성, 김광언 (1998). 한국 민속학, 새문사.
- 김미예 외 11인 (1999). 아동간호학 I, II, 수문사.
- 김주숙 (1994). 한국 농촌의 여성과 가족, 한울 아카데미.
- 김태임 (1991).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지각 및 양육태도와 초기수위 상황에서의 모아 상호 작용 양상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승직 역해 (1999). 논어, 고려원.
- 홍승직 역해 (1999). 대학·중용, 고려원.
- 한운송, 조형남 편역 (1990). 소학, 자유문고.
- 소혜왕후 한씨 저·이민수 역주 (1989). 내훈, 흥신문화사.
- 손인수 (1986). 한국인의 가훈 I, II, 문음사.
- 유안진 (1991). 한국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유안진 (1994). 한국의 전통 육아 방식,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광규 (1994). 한국 전통문화의 구조적 이해, 서울대학

- 교 출판부.
- 이규태 (1990). 한국인의 의식구조 I · II · III, 신원문화사.
- 최영희 (1993). 질적 간호 연구, 수문사.
- 최재석 (1966). 한국가족연구, 민중서관.
- 최준식 (1999).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사계절.
- 추적 편저 (1995). 명심보감, 성균관.
- 최길성 (1994). 사머니즘의 입장에서 본 정신건강의 개념. 정신건강연구, 2, 한양대 정신 건강 연구소, 1-11.
- 최봉영 (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1), (2), 느티나무.
- 추미호 (1986).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불안정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일식 (1996).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 정신세계사.
- 中根千枝, 최길성 역 (1982). 일본의 사회구조. 형설출판사.
- Adams, M. (1963) Early concerns of primigravida mothers regarding infant care activities. Nursing Research, 12, 72-77.
- Bull, M. J. (1981). Change in concerns of first-time mothers after one week at home.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10, 391-394.
- Ginott, H. G. I, Between Parent & Child, 이유경 역 (1983), 부모와 자녀, 녹원출판사.
- Ginott, H. G. II, Between Parent & Teenager, 이유경 역 (1983) 부모와 십대, 녹원출판사.
- Mercer, R. T. (1981). A Theoretical Framework for studying Factors that Impact on the Maternal Role. Nursing Research 30(2): 73-77.
- Mercer, R. T. (1985). The Process of maternal role attainment over the first year. Nursing Research, 34, 198-204.
- Micheal, H. Agar : 이용남 등 역 (1993). 민족지학 이야기. 교육과학사.
- Ohashi, J. P. (1992). : Maternal role satisfaction. A new approach to assessing parenting. Sch. Inq. Nurs Pract., 6(2), 135-150.
- Pamela, J., Brink (1990). Transcultural Nursing, Waveland Press.
- Pridham, K. F., Hansen, M. F., Bradley, M. E., Heighway, S. M. (1982), Issues and Concern to Mothers of New Babies. Journal of Family Practice, June, 14(6): 1079-1085.
- Russell, C. S. (1974). Transition to Parenthood.: Problem and gratific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6, 294-301.
- Ryan, K. A. (1993). Mothers of Adult Children with Schizophrenia : An Ethnographic Study. Schizophrenia Research, Dec: 11(1): 21-31.
- Spradley, J., Barbar McCurdy, C. : Conformity and Conflict : Reading in cultural anthropology, Little Brown Co, 1977 equoted in 최영희 외 (1992). 간호와 한국문화, 수문사.
- Spradley, J. (1983). Participant Observation,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 방법. 이희봉 역,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Walker, L. O., Crain, H., & Thompson, E. (1986). Maternal role attainment and identity in the postpartum period : Stability and Change. Nursing Research, 35, 68-71.

- Abstract -

Key concept : Child-rearing experiences,
Ethnography

An Ethnography of Child-Rearing Experiences of Korean Mothers Living on Koje Island

Lee, Soo Yeon*

Nursing practices should be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In order to understand human beings,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lifestyles and thoughts of people in

*Koje College

their natural environment. In this sense, the cultural aspects of a society need to be studied for a culture-bound nursing service. Child care, which is an important element of nursing, is also strongly influenced by the culture of a society. Therefore, a cultural study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ild-rearing practices of any society. The major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provide basic foundations for developing a culture-based theory for nursing intervention through studying traditional cultural elements of child care in Korean society.

The study examined child-rearing practices in a small village on Koje Island in the southern part of Korea. It utilized ethnographic methodologies including participatory observations and in-depth interview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9 Korean mothers living on Koje Island. The average age was 52. The data were collected between July in 1998 and December in 1999. The average number of interviews per person was 7-8, and the duration of each interview was approximately 2 hour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radley Analytical Method. The following 9 major child-rearing aspects of mothers on Koje Island were discovered as a result of the study:

1. Firstly, mothers on Koje Island were mostly concerned about the "Old Birth Goddess' Curse", especially during their child's early years. This concern was evidenced by their careful behavior when their child was very young and by their praying to the Old Birth Goddess not to be jealous of their babies.
2. Secondly, they wished their children to live a different and better life than themselves. It was represented by their strong motivation toward their children's education as well as their expectation for their children's success. In traditional Korean culture, Korean people think that the rise and fall of the household depend on their offsprings. Therefore, Korean mothers wish their children attain to a higher level of social status through education.
3. Third, mothers are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s righteousness. Mothers on Koje island expect their children to live with discretion, justice, strength, respect, harmony, and to do their best in life.
4. Next was an 'anticipation of their children's happy marriage'. The attributes of this category were an 'anxiety about their children's married life', and 'an expectation of a good spouse for their children'. Because Korean people believe that only a son can continue the bloodline of a family, especially Korean mothers have a great concern of the possibility of their daughters not having a son after marriage. Also they have different expectations toward their daughter-in-laws than son-in-laws.
5. Korean mothers also derived their satisfaction from their son. It was characterized by 'excessive affection toward their son', 'dependency on their son', and 'being afraid of their married daughter having a girl like themselves'. Korean society has been a patriarchy. Therefore, a son is beloved as someone who will take care of his old parents, be in charge of ancestral rites, and provide a daughter-in-law who can conceive a son.
6. The sixth category concerned 'the differences in their expectations for their children'. The attributes in this category were 'different expectations depending on their children's gender', 'different expectations depending on their children's ability', and a 'great sympathy toward children with low abilities.' Korean mothers expect their son to become better than their daughter.
7. The seventh category was related to their 'roles in child-caring practices'. Traditionally a child was raised in an extended family

system in Korea. So it was not the sole duty of a mother to bring up the child. Korean mothers used to receive much help raising children from their in-laws, and family members. On the other hand, many children grew up by themselves, because their mothers were very busy taking care of housework. Furthermore, many children also grew up in poverty.

8. Mothers also had issues related to 'conflicts in child rearing'. They were characterized by 'lack of understanding', 'rudeness of children', and 'giving vent to one's anger'.
9. Finally, mothers regretted not doing their best in child-rearing practices. It was characterized by a 'bitter feeling of repentance', 'feeling irritated', and 'feeling of unsatisfaction'.